

## 독일 맥주축제(Oktoberfest)

김태호 과장 기획조사팀

독일은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거쳐 독일제국으로 성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옥토버페스트 입구





대형텐트

독일을 생각하면 가장먼저 축구와 맥주가 떠오른다. 현재 독일 내에는 약1,300개가 넘는 맥주 공장이 있으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종류는 약4,000여종 이상이 된다고 한다.

맥주는 역사적으로 BC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여섯줄보리(六條大麥)가 재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는 함무라비 왕조의 유적에 기록이 남아 있다. 그 후 보리의 재배가 이집트로 전해져 이집트 제4왕조 때부터 제조하였으며, 그 방법은 그리스·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두줄보리(二條大麥) 산지인 독일 및 영국에서 발전·성행하였다.



독일맥주는 1516년 바이에른 왕국 빌헬름 4세 때 발표된 맥주순수령(보리, 홉, 물의 3가지 원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에 의해 그 품질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독일인들의 음료로서 사랑받으며 축제나 행사에 사용되었다. 독일은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 전국에 걸쳐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그 중 세계적인 축제로는 뮌헨 맥주축제(Oktoberfest)가 있다.

뮌헨은 인구 약 130만 명의 독일 남동쪽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호프브로이' '뵘브로이' 등 6개의 유서 깊은 맥주회사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뮌헨맥주축제 기원은 1810년 10월 12일 바이에른 왕국의 루드비히 왕자와 작센의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유래되었으며, 1896년부터 대형 맥주회사들과 연합해 대규모 맥주축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007년 174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19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전쟁과 유행병, 테러 위험 등의 위기로 취소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축제장소는 매년 동일한 장소인 '테레지엔비제(Theresienwiese)'에서 9월 셋째주 토요일 정오를 시작으로 10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열리고 있다.

맥주축제는 뮌헨시장이 "오 차트 이즈!!(Ozapft is!!)"라고 소리치면서 맥주통의 마개를 망치로 내려치는 개막식 행사로 축제가 시작된다. 이어 큰 퍼레이드도 있는데 민속의상과 맥주 마차 등 볼거리가 많다고 한다. 필자는 아쉽게도 이때를 놓쳐 제일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했다.



축제장은 약9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14개 대형 텐트가 설치되고, 각 텐트내에는 악단과 그 음악에 맞춰 노래와 춤을 추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의자위에 서서 맥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축제장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독일 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장을 찾는다.

축제장 외부는 좀 더 저렴하게 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맥주를 즐기다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굉장한 규모의 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대형 텐트별로는 조금씩 다른 분위기와 손님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음악이 좋은 곳, 편안하게 가족들과 가기 좋은 곳, 젊음이 위주의 텐트 등 테마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텐트는 입장료가 없으나,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이 자주 출입하는 '뿔 좋은 텐트'는 입장료를 받기도 한다.

대형텐트 내부전경 1





대형텐트 내부전경 2

행사가 열리는 2주동안은 축제장 거리와 대형텐트 할 것 없이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으며, 텐트내에 자리를 잡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른 오후부터 자리는 만석이며, 독일인들 퇴근시간 무렵에는 복도까지 들어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복도에서는 1ℓ 맥주잔을 들고 다니며 '프로스트(Prost)'를 외치며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를 즐기기도 한다. 실제로는 복도에서 맥주와 음식을 시킬 수 없어 좌석에 앉은 분이 부탁해서 마신다.

제174회 맥주축제는 세계 각국에서 총 620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독일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에는 이탈리아인이 가장 많았다. 또한, 미국과 동유럽 등지에서 온 방문객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부 소형매장(상, 하)

이번 행사기간 중에 소비된 총 맥주량은 약670만 리터로 전년의 690만 리터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행사기간이 작년에 비해 2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일 환산 소비량은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04마리의 소(Bullock)가 소비되어 작년 102마리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술축제가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잡아 국내의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